



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원장 전정희)가 2025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이행점검 지원사업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르면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지원사업의 첫 시작으로 27일 군산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여성기족부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전북 지역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이행 등 단계별 교육 부문을 지원함으로서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참여자들은 사례 토의, 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을 통해 일상의 조직문화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불평등 문제와 이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서 공공부문 업무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상호 존중과 협력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정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관리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관)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및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2025 10대 핵심 과제 실현을 위한 관리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2025 상반기 장수교육의 성과 및 보완점 분석, 전북교육의 10대 핵심 과제 실현을 위한 선진교육 시설 방문 및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ESG 실천을 위해 서울시 활용플러시와 서울하수도과학관을 견학하며, 독서·인문교양 강화를 위해 별마당도서관을 탐방하고 AI·디지털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글 코리아를 방문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수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최근 관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관리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2025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 이해도 및 감수성을 증진 시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오전에는 교(원)장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동아대학교 오성배 교수가 학교장이 일야야 할 다문화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환경기초시설 관계자들, 김제시에 성금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7일, 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7회 환경기초시설 한마음체육대회에서 환경기초 시설 관련 업체 대표들이 뜻을 모아 총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에는 (주)피아니스알앤디(대표 고안상), 신진유지 건설(주)(대표 김민식), 리뉴어스(주)(대표 권지훈), 일토씨 앤앰(유)(대표 최규연), (주)전북엔비티(대표 박동기)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수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순한 친목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뜻깊은 나눔으로 이어져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환경기초시설 관계자들은 “오늘 한마음대회를 통해 동료들과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 상황관리 우수사례 ‘소방청장상’

전북소방 119종합상황실 서승연 소방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26일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도 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19종합상황실 소속 서승연 소방교가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소방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시·도 대표로 선발된 소방대원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대응 과정의 전문성·청의성·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서승연 소방교는 지난해 7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상황에 대한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당시 서 소방교는 위성자료와 기상정보를 분석해 침수 우려 지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드론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등 ICT 기반의 상황관리체계를 수행했다.

또한 고립된 주민에 대한 구조활동을 신속히 전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이끌어냈다.

심사위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 유기적인 협업 체계, ICT 기술을 활용한 다각적인 대응 역량이 매우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서 소방교는 “당시 상황은 매우 긴박했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 하나로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모두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정밀하게 대응해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소속 대원의 혁신과 전문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와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해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유니드비티플러스,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마루 시공

(주)유니드비티플러스(대표 한상준)가 무주군 안성청소년문화의집 기전대학교 신학습체험단 운영에 6천만 원 상당의 마루를 시공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마루 시공은 청소년들이 폐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돋구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주)유니드비티플러스의 친환경 고급 마루 브랜드인 ‘올고마루’를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내 꿈틀방과 자치회의실, 사무실 복도 등 총 294.4m²(약 89.2평) 면적에 전면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한상준 대표는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가치 있는 성과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주)유니드비티플러스는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심 철학으로 삼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꿈을 키워 가도록 돋구고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주)유니드비티플러스는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은 목련회, 여성장애인 복지향상 후원금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회장 김태희)는 지난 27일 전주시 평화동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운민)에서 여성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 여성위원회 구성된 목련회는 여성 직원의 특성을 살린 기부 및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장애인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돋는 실습 중심의 요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다.

이날 목련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매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오상근 기자



며 “여름 무더위와 긴 짱마기간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 각종 전국대회에서 선전해 고른 활약을 펼쳤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금 4개 획득

진안군청 역도 선수단의 메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군에 따르면 20일부터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97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이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대회에서 유동주 선수는 남자 90kg급에 출전해 용상 205kg 인상 161kg 합계 366kg를 들어 올리며 금메달 3개로 3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김요한 선수는 남자 67kg급에 출전해 용상 167kg를 들어 올리며 3개월 전 166kg으로 경신했던 본인의 한국 주니어 신기록을 다시 새롭게 쓰며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에 전준성 진안군수는 “이번 달에도 메달을 수확하여 진안군의 명예를 상당한 역도선수단에게 진안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히 유동주 선수의 3관왕과 김요한 선수의 한국 주니어 용상부문 신기록 세계신을 축하한다”



며 “여름 무더위와 긴 짱마기간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 각종 전국대회에서 선전을 기원하며 군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자, 피오리움 무료입장

남원시가 2025년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신규 개관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피오리움’은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실감 몰입형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으로 합파우 아트밸리·광한루원 등과 함께 연계하여 남원시 대표 기록 체류형 관광지로 입장료는 1만 2천원이다.

전시관(전시관 문의: 063-620-5567)을 찾은 관람객은 현장에서 2025년에 남원시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한 내역(고향사랑기부 미아이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피오리움’ 무료입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활환경면협회 전북본부, 정읍에 고향사랑 기탁

(사)한국생활환경면협회 전북본부 한태문 본부장이 고향 정읍을 찾아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한 본부장은 지난 26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하며 정읍 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정읍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부에 동참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기부가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를 받은 이학수 시장은 “비쁜 일정에도 정읍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걸음을 해주신 한태문 본부장과 협회 관계자들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태문 본부장은 “(사)한국생활환경면협회는 2020년 11월 창립된 이후 석면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안전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를 이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공직자 대상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26일 시청 강당에서 공직자 200명을 대상,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자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착한가게 신규 8개소에 현판 전달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신규로 착한가게에 기枳한 8개소에 현판을 전달했다.

신규 착한가게는 남원시자체마트(대표 방동표), 노랑치마식당(대표 배은숙), 둑가(대표 장윤용), 미현(대표 김혜일), 신촌매운탕(대표 설윤미), 유성회집(대표 유영숙), 좋은아침 페스츄리 남원점(대표 윤문숙), 한일부엌가구(대표 김민이) 등이며, 이번 8개소의 신규 기업으로 나눔 실천에 동참하는 가게는 총 33개소가 되었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